

정직과 성실 그리고 신뢰

6.9 공공에 알리기*

6.10 이해 충돌

목차

01

공공에 알리기

02

실제 사례

03

이해충돌

04

실제 사례

05

퀴즈!

공공에 알리기

-최소한의 위험이 있는 기술·상황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는 것

전문가의
무책임



기술적인
정보부재



위험 또는
문제발생

공공에 알리기의 근거

왜 알려야 하는가?

인간존중 윤리 관점 ⇒ 알리지 않는 것 = 도덕적 결함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음

전문가의 의무: 거짓말 안 하는 것 그 이상 적극적으로 알려야 함

요양원 노인학대 공익신고(2025)



무슨 일이 있었나?

[단독] "강아지도 안 먹을 음식".. '尹 장모 요양원' 노인학대 정황 긴급조사

입력 2025-04-29 20:24 | 수정 2025-04-29 21:20



- 입소자 1인당 월 37만 5천원 식대 수령
⇒ 실제 간식비 1인당 100원 수준
- 썩은 과일, 건더기 없는 곰탕, 미역 없는 미역국 제공
- 80대 노인이 혈변·설사 증상 3주 방치 후 사망
- 의사결정 가능한 어르신을 24시간 침대에 묶어 놓음

왜 신고가 결정적이었나?

MBC가 입수한 건보공단 2021년 정기평가에 따르면, 학대와 신체적 구속을 평가하는 '노인인권보호'와 기저귀 교환 같은 '배설 관리' 항목 등에서 가장 낮은 등급인 '미흡'을 받았습니다.

2019년 남양주시의 지도점검에서도 식재료비를 용도 외로 지출하고 신체억제대 사용 시 기록을 제대로 하지 않아 적발됐습니다.

지난 2018년과 2021년에도 병원이송 기피 등 입소자에 대한 학대가 신고돼 조사에 나섰지만 두 번 다 별문제가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전진숙/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문제의 시그널(정황)이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치고 있다가 지난 4월 9일 공익 신고가 이루어진 다음에 서야 현지 조사를 했습니다. 느장 조사한 거 맞고요."

이 사례에서 배우는 것



내부에 있는 사람만 아는 정보 → 공익신고의 힘

신고 없이는 피해가 계속됨 (3주 방치, 반복 학대)

전문가(요양보호사)의 신고가 공공의 안전을 지킴

이해충돌

- 전문가적 판단을 무디게 하는 것
- 고객의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 전문가 정신에 큰 타격을 주는 것

이해충돌의 유형

실제적 이해충돌: 지금 당장 판단을 훼손

잠재적 이해충돌: 아직은 아니지만 나중에 문제될 수 있음

표면적 이해충돌: 실제 잘못은 없지만 공중의 신뢰를 깎음

의사의 리베이트 수수(2025)



무슨 일이 있었나?

리베이트?

제약회사가 의사에게 "우리 약 많이 써줘" 하고 몰래 주는 돈이나 선물

의사의 리베이트 수수 기점은 언제부터인가

[박창범 닥터To닥터]

박창범 교수

발행 2026.04.10 13:45 | 업데이트 2026.04.10 13:46



사진=클립아트코리아

- 의사 A, 제약회사 영업사원에게 10회에 걸쳐 현금 980만원 수수
- 명목: 제약회사 약을 환자에게 많이 처방해주는 대가
- 2022년 검찰 기소 → 2024년 벌금 700만원 + 추징금 921만원 유죄
- 2025년 3월 의사 면허 자격 정지 4개월 처분

왜 이게 이해충돌인가?

- 의사의 역할: 환자에게 가장 좋은 약을 처방하는 것
- 현실: 돈을 준 제약회사의 약을 우선적으로 처방
- 환자 이익 vs 의사 개인 이익 → 충돌 발생
- 교재 정의: "전문가의 판단이 고객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작동하는 상황"

의료현장에서 이해충돌이 위험한 이유

- 리베이트 비용 약값에 반영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 환자는 자신에게 맞지 않는 약을 처방받을 수 있음
- 간호사도 유사 상황 가능: 특정 의료용품 납품업체와의 관계 등
- 전문직일수록 판단의 독립성이 중요

Quiz 1

Q. 공공에 알리기에서 전문가의 의무는 어디까지일까요?

1. 거짓말만 하지 않으면 된다

2. 질문을 받았을 때만 사실을 말하면 된다

 3. 적극적으로 위험 사실을 알리는 행동까지 해야 한다

4. 상사의 지시가 있을 때만 알리면 된다

Quiz 2

Q. 요양원 사례에서 80대 노인이 혈변과 설사 증상을 보였음에도 병원 이송이 지연된 이유는 무엇인가?

1. 환자의 증상이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2. 입소자가 병원에 입원하면 영양급여를 절반밖에 받지 못하기 때문에

3.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4. 병원 병상이 부족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